



시론 02

AI 파고, 36.5도 건축으로 진화

기고문·신년사 03

기고문 _ 광주도시읽기
신년사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남건축사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전남건축사회, '2025 전라남도건축사회 송년문화제' 성황리 개최
광양시·광양지역건축사회, 전입 세대 주택건축 설계비 30% 감면 협약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따뜻한 연말 나눔 실천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건축부문 육광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채담)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도내 고등학교 건축과 학생 장학금 전달

광주 지역 뉴스 08-09

광주건축사회,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광주·전남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 개최
광주건축사답사동호회 2025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독자광장 10

신년취호
한 장의 사진 _ Saint mary's cathedral
책 소개 _ 건축가의 습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11-12

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 '호옴 ho:om'
금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비주거)) 'A VOLTE'
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주거)) '화일현(和日軒)'
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한옥)) '풍연가옥(豊蓮家屋)'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민간 분야(조경)) '장자바다정원'
동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주거)) '다반·재(茶飯·齋)'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1월호(19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AI 파고, 36.5도 건축으로 진화



신재욱 논설위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newurban@hanmail.net

[경력]

- 광주광역시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 건축사
- 도시계획기술사

[참여 도시계획 프로젝트]

- 광주 도시기본계획
- 영산강 Y프로젝트
- 광주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스터플랜
-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계획 등

[저서]

- 도시계획+건축인가 실무노트(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과 부동산(2022)
- 도시계획+건축인가 실무서(2008)
- 건축인가 실무노트(2004) 등

“건축사님, AI가 그려준 이 도면대로 건축허가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 아니 어쩌면 내일 당장 클라이언트로부터 들게 될 이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이제 소규모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평면계획 정도는 건축주가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들고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노바나나(Nano Banana)’ 같은 툴이 쏟아내는 고해상도 투시도는 전문가의 수개월 노력을 단숨에 추월하듯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도면 한 장의 정밀함이 곧 권위였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설계 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맞물린 미증유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성실히 도면을 그려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받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장의 건축가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시장의 대전환이기도 합니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를 역이용해, 그동안 축적해 온 건축적 경험과 미학을 ‘독자적인 IP(지식재산권)’로 확장하며 ‘공간 기획’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하디드 건축사사무소(ZHA)는 AI 시대의 설계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시로 노동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콘텐츠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도구로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과 디지털 건축 프로젝트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이 구축하는 메타버스는 게임 속 가상 도시나 NFT 열풍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물리적 시공 없이도 건축가의 감각과 공간 문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가상 전시관, 명품 쇼룸, 기업의 가상 사옥 등은 이제 건축가의 설계가 반드시 시공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갇힐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설계비에 국한되었던 수익 구조가 기획비, 라이선스, 브랜드 사용료 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다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공공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공공건축 심의 과정은 종이 도면과 조감도로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설명’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

제는 계획안을 가상 도시 위에 실시간으로 구현해 일조권, 조망권, 보행 동선, 소음 변화 등을 시민과 위원이 직접 체험하며 검증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역시 사후 분석이 아닌 사전 시뮬레이션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경로를 파악하고 인파 밀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들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건축사의 역할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도시 데이터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건축사는 ‘그리는 사람’에서 ‘결정하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재편될 것입니다. 도면의 기술적 완성도는 AI가 상향 평준화하겠지만, 그 수많은 생성 대안(Option Generator) 중 행정적 맥락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안전과 미학을 종합해 최적의 해법을 선택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건축가를 ‘결정 책임자(Decision Owner)’로 재정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인간의 ‘결정’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초고속으로 계산하는 차가운 시대일수록, 건축의 본질은 다시 인간의 체온인 36.5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돕는 도구일 뿐,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용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일궈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설계자의 틀을 깨고,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를 다스리는 ‘공간 전략가’로 진화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시대의 파고는 설계 업계의 위기를 재촉하는 파도가 아닙니다. 건축가 본연의 창의적 직관과 책임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빛내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진화의 길로 나아갈 때, 건축의 영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저자 소개] 신재욱은 건축사이자 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스터플랜, 광주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등의 다수 저서를 냈다. AI 시대 도시설계와 공간기획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1/2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중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기고문 _ 이창을 건축사 /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주)GA건축사사무소 대표

“광주도시읽기”

광주란 도시,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도시화·산업화 혁명 50년 동안 광주, 전남·북 사람 150만명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의 광주는 140만명대까지 붕괴되어 139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상, 전라, 충청 인구 순서가 지금은 경상, 충청, 전라 순입니다. 충청권 인구가 전라권 보다 62만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는 인천과 대전뿐입니다.



이럼에도 현대 Shopping Mall, 신세계 Shopping Mall, 어등산 Shopping Mall, Costco 유치 등 우리는 강건너 불난집 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상권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 광주 중·소 서민들의 골목상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랜 세월 쌓아온 상권들을 다 빼앗기고 타 시도로 또 쫓겨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광주공항이 옮겨가면 그 땅에 먹고 살만한 어떤 순기능의 기획도시를 만들어야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까요?

청년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비율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청·소년 로또 복권 매입률 1위(KBS).

GDP 50년 항상 꼴찌 도시(통계청). 이는 숨길 수 없는 우리 광주의 척박한 민낯들입니다.

도심 공동화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데 각종 임의·심의 기준들의 역·강제로 광주는 ‘건축을 디자인할 수 없는 광주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으로 이번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승인해 임의 기준들을 배제하고 프리하게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미래 ‘광주건축도시디자인’을 예표한 최적의 권장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깊게 동정하며 향후 선진 광주 건축디자인도시의 실현을 꿈꾸며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건축디자인도시는 시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건축주, 시민들에게 건축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과 그 수단으로 20여년 전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시작한 1,2회 대회 이후 지금은 관 측 시민의 예산지원에 힘입어 바람직한 큰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축제일 때 그 가치는 날로 더해질 것입니다.

‘건축은 그 나라, 그 도시의 격’을 높여 줍니다(건축기본법). 그러나 이 순기능의 총괄건축가제도까지 매몰시켜버린 비전문가들의 척박한 건축도시행정인지라 우리 전문인들은 그 본질적인 책무까지 떠 뢰어져야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의 무관심은 방관죄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전문인 모두 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 정책이란 Field action이라 합니다(건축정책학회). ‘수동태 직설법에 의한 현재 진행형 또는 완료형’이어야 합니다. ‘혁신’의 단계를 넘어 ‘혁파’가 시급한 우리 광주도시의 현상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Role model 인천은 국제공항, 청라지구 기획도시에 육·해·공의 물류까지 탑재시켜 대한민국 제2도시를 꿈꾸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 PPT 실행 보고서를 입수하여 지인 몇 분과 함께 공유·공부하고 있습니다. Forum장에서 광주의 앞날을 내다보는 여러 전문인들과 함께 담론하고 싶은데 환경과 그 빈틈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들 ‘건축산업시대’라 합니다. 건축분야 매출이 건설산업 총 매출의 67%가 넘었기 때문입니다(건축학회). 건축산업은 세수증대, 고용창출, 특히 청년 실업문제해결, 관광객유입 등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는 다시 모여드는 경쟁력있는 도시로 창성케 해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역동적인 수동태 현재 진행형의 도시 “광주건축산업도시”를 확신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건축은 그 도시의 격을 높여 줍니다.

신년사



강필서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존경하는 건축문화사랑 독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새해에도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건축문화가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을 건축을 통해 널리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건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지역 건축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이경일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2026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회원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가 지혜와 연대로 뭉쳐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새로 마련하는 희망찬 한해를 만듭시다.

올 한해 건축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만복이 깃드시고 적토마와 같은 기백과 행운이 가득하여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사



이성열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힘찬 기운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굳건한 역할을 기대하며, 우리 건축사님들께 더욱 큰 도전이자 무한한 기회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사님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여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포공업고 다담은 “Community Restroom”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2
Tel. 061-285-86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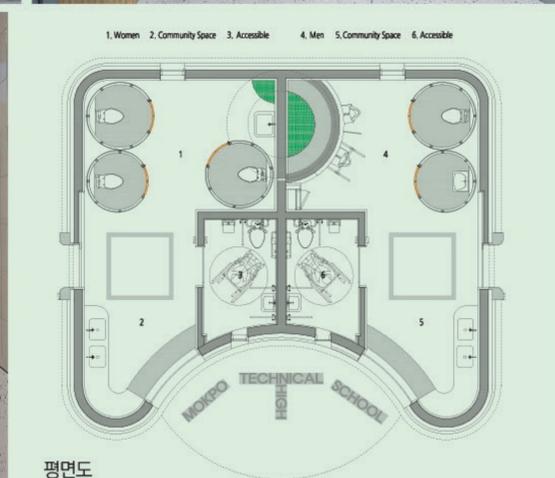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0 / 대지면적 : 62,764,200㎡ / 건축면적 : 69,294㎡ / 연면적 : 69,294㎡ / 건폐율 : 19.01%
용적률 : 44.21%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외단열토탈시스템, 스타코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출발점으로 시작되었다.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건축적으로 해석하며, 기능에 앞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가장 일상적이지만 단순한 위생시설로 인식되어 온 화장실을, 머무름을 허락하고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는 일상의 쉼터와 같은 공간으로 재정의했다. 직선 중심의 기존 공간 대신 곡선 디테일을 적용해 심리적 긴장을 낮추고, 픽토그램은 부착되는 사인이 아닌 건축의 일부로 계획하였다. 원형 큐비클과 개비온 파티션, 알파벳 벤치를 도입해 색다른 공간 경험을 더했다.

또한 통창과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과 플랜테리어를 적극 활용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명효과를 통해 라운지와 같은 편안함과 안전한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과도 공유되는 공공오브제로 재해석했다.



전남건축사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전남건축사회는 지난달 24일 목포MBC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 전문 자격자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남건축사회, ‘2025 전라남도건축사회 송년문화제’ 성황리 개최

회원 및 내외빈 200여명 참석해 자리를 빛내...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달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2025 전라남도건축사회 송년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건축사회 회원을 비롯해 내외빈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송년문화제는 화려한 오프닝 공연으로 막

을 올렸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환영사와 내빈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전남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고, 미래 건축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광양지역건축사회, 전입 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30% 감면 협약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동기)가 전입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을 골자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

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가 광양지역에 연면적 100㎡(약 30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광양시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지역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된다.

주택 준공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입 세대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이 주거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건축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 '2025년 찾아가는 건축사 건축인허가 상담 서비스' 큰 호응
관내 활동 중인 건축사 14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전남 화순군은 주민들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 '2025년 찾아가는 건축사 건축인허가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관내에서 활동 중인 건축사 14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상담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월평균 20명 이상, 총 220명이 넘는 주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 기준, 설계 방향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행정 접근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민중 인허가과장은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상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2026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생활 속 건축 행정 문턱을 낮추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 2026년부터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허가·신고, 법령 등 상담 제공...



(사진 = 함평군청 제공)

전남 함평군은 "민원인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건축 민원 상담실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법령과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건축사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실에서는 민원 발생이 많은 건축 허가·신고 절차,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등 건축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역 건축사 6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어 민원인이 쉽

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질 높은 상담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은 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 내에 마련되며 매월 둘째,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민원인께서 불편 사항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겠다"며 "고객 만족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지역건축사회 변형우 건축사, '2025 대한민국 규제 합리화 대상' 장관표창 수상

생활속박시설 입지여건 개선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해 제도 개선 이끌어...



(사진 = 여수지역건축사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여수지역에서 20여년간 활동해 온 변형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인)가 '2025년 대한민국 규제 합리화' 유공자로 선정돼 중소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변형우 건축사는 건축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실제 법령과 조례 개정에 기여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생활속박시설 입지여건 개선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합리화 ▲준공표지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방안 마련 ▲건설공사 실험실 규격의 현장 현실 반영 등이 있다. 이들 과제는 건설-건축 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변형우 건축사는 수상 소감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제도는 발주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건축사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여수지역건축사회 고철주 회장은 "변형우 건축사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현장 실무형 규제혁신 전문가로, 현장의 의견을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수상은 여수지역 건축계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지역 전문가 주도의 규제 개선 사례라는 점에서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4명 (2026. 1. 8. 기준)

- **입회**
 - 김영익 건축사 / 이음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35-1, 2층
 - 김정오 건축사 / 정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 삼호중앙로 163, 3층
- **변경(소재지)**
 - 조동화 건축사 / 동화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29, 3층
 - 신홍민 건축사 / 창암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1, 402호
 - 임은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 전남 순천시 장명로29, 3층
 - 안병욱 건축사 / (주)예림씨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35, 203호
 - 박효은 건축사 / 에스더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복산길 12번길 15, 2층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SJ산림문화복합센터

임대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보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6길 6
Tel. 063-272-3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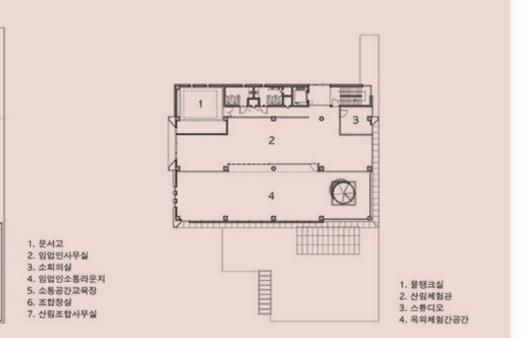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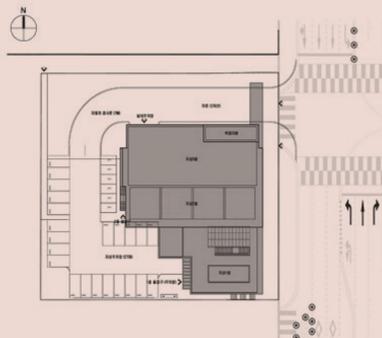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4로 9 / 대지면적 : 2,561㎡ / 건축면적 : 908.86㎡ / 연면적 : 2,138.86㎡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업무시설,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루미늄복합패널

완주군산림조합의 신청사인 SJ산림문화복합센터는 금융업무와 사무실, 산림가공 및 어린이 산림교육을 위한 복합건물이다.

건물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분절과 통합이 표현하도록 계획하였고, 각 층마다 조경공간을 계획하여 산림조합사옥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대지는 전면도로보다 2.5m 높기 때문에 스킵 플로어(skip floor) 형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계획하였고, 내외부를 다양한 동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난 및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1층에는 금융업소와 숲 카페를 계획하였고, 2개소의 천장을 통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사이계단을 통해 2층 휴게데크로 연결하여 2층 교육생 및 사무실 재실자들과의 공용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3층은 산림체험관으로 군민을 위한 체험 및 휴식공간을 위한 공용 공간이다. 또한 추후 공간 확장을 위하여 구조 및 외부 계획을 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명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따뜻한 연말 나눔 실천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천만 원

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 지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민원 상담, 주거 취약계층 점검 봉사, 노후 건물 안전 자문 등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은 건물을 짓는 기술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이어지는 건축사회의 나눔은 전북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지역을 지탱하는 건축물처럼, 건축사회의 선한 영향력도 전북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건축 부문 육광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채담) 수상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는 지난달 24일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열린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예술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5개 부문 수상자 중

건축 부문에 육광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채담)가 수상했다.

육광돈 건축사는 지역건축문화 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육광돈 건축사는 전주신흥고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3년 건축사사무소 채담을 개소 후 2017년 전주시건축상 리모델링 부문 최우수상, 2019 전주시건축상 특별상, 2025 전북특별자치도건축문화상 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건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도내 고등학교 건축과 학생 장학금 전달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이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학생 5명...



(사진 = (좌) 전주공고 / (우) 이리공고)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 인재들을 응원하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 건축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건축계의 후배 양성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축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장학금 전달 대상은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와 이리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와 건축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이들로, 전북건축사회는 이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특히 전북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우수한 건축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지역 건축 전문가 단체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래 건축사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이번 활동은 지역 사회와 교육 현장이 협력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 중앙성당,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초대회장 김성근 설계 참여해...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가 확인이 되고, 최초의 설계도면이 남아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 건축가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성근 씨가 참여했다.

전주 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공간을 확보했는데, 이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앞서 등록된 다른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4명 (2026. 1. 8. 기준)

• 퇴회

- 안 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허브
- 이다혜 건축사 / DH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강경남 건축사 / 재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3길 3-8, 101호

• 변경(소재지 및 사무소명)

- 박 훈 건축사 /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유)제이엠디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9 503호

• 결혼

- 성두호 건축사 / 우원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2월 14일(일)
- 문형국 건축사 / 문형국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2월 14일(일)

• 부고

- 유영록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2월 05일(금)
- 양시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연 / 본인 별세 - 2025년 12월 12일(금)
- 정지상 건축사 / 가가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12월 14일(일)
- 김기범 건축사 / 범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12월 18일(목)
- 최형규 건축사 / 1010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6년 1월 04일(일)
- 문남영 건축사 / 맥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6년 1월 06일(화)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담양 삼다리 주택

소상용 건축사 / 소아키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3, 3층 301호
 Tel. 062-456-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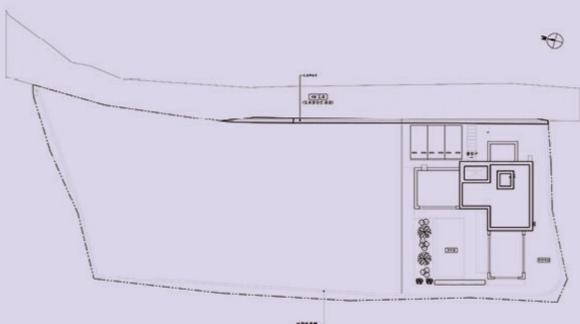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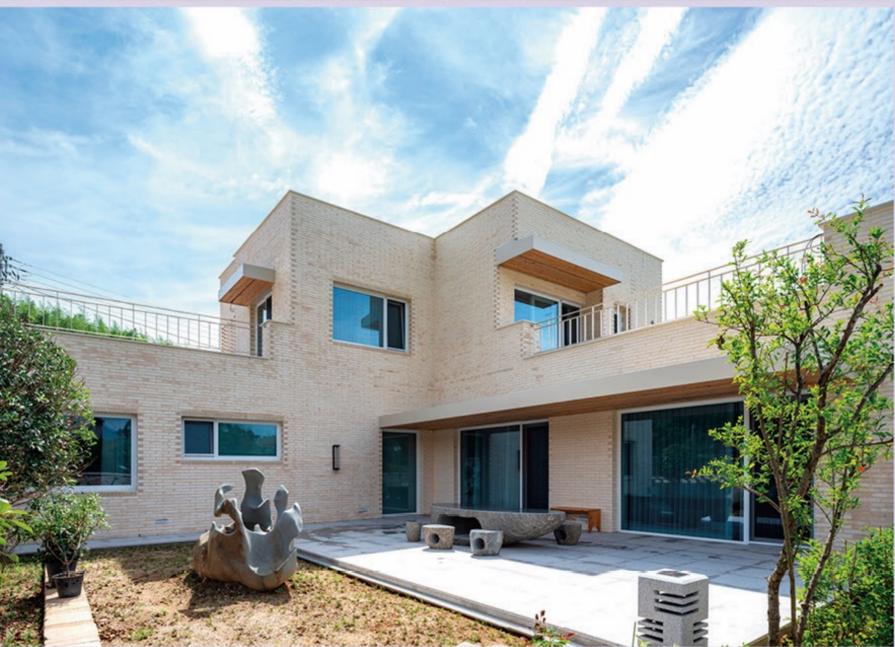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 대지면적 : 1,866.00㎡ / 건축면적 : 150.00㎡ / 연면적 : 195.19㎡ / 건폐율 : 8.04%
 용적률 : 10.46%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장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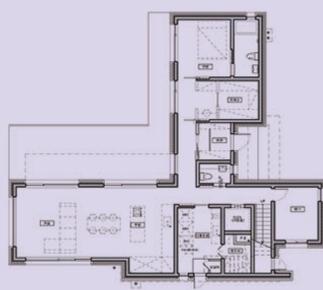
“ 도로 쪽에서는 주택의 매스가 담장의 역할을 하여 외부의 공공 영역과 내부의 사적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할 때는 공공성과 프라이버시가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완충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현관은 위요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를 오픈시켜 하늘이 네모난 프레임처럼 보이는 공간을 지나 주택 안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내는 주방, 식당, 거실이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방감을 주며,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에 좋은 대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거실의 좌측에는 작은 마당이, 우측에는 넓은 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당은 담장과 건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으로, 식사나 놀이를 위한 장소로 활용됩니다. 넓은 마당은 정원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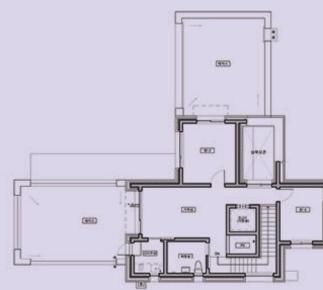
2층에서는 넓은 테라스를 통해 삼다리 저수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도와 계단 공간은 오픈되어 있어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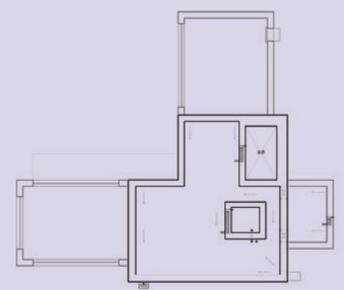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광주건축사회,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지난 5일 역대회장 및 회원 등 110명이 참석...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일 오후 2시 북구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회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강필서 회장 주재로 2026년 협회 운영 방향과 연금관리, 신협 등 주요 업무보고, 회원수첩

배포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강필서 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에도 녹록치 않은 건축사 업무 환경이지만, 회원복지증진과 건축사 업무지원에 힘쓰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뜻을 대변하는 광주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무식에 이어 정책 설명회에서는 정명철 건축사정책연구소 소장이 ‘건축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계가 확보해야 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와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 개최

강필서 회장 참석해 지역 건설·건축 분야 상생 지속가능 협력 논의...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지역 10개 경제단체 및 기관과 함께한 ‘2026년 광주·전남 노사민정 합동 신년인사회’를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함께 나누는 기쁨, 같이 여는 내일! 비상하는 광주전남’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 재도약과 상생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자치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경제·정치계 인사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또한 강필서 회장도 참석해 지역 건설·건축 분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노사민정 각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에 광주건축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답사동호회 2025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이주경 건축사(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신임 회장 취임...



광주건축사답사동호회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의 이주경 건축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주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호회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 간 전문적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필서 회장 및 동호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건축사답사동호회는 건축 답사 활동뿐만 아니라 연말 불우이웃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광주건축사회,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시민 만족도 높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상담과 현장 자문 총 231건 해결...



(사진 =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는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매주 수요일 전문 상담과 현장 방문 컨설팅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는 6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현장 자문 등 총 231건의 건축 민원을 해결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건축행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전상담은 이용자 만족도가 9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광산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권리 보호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반 건축물 무료 현장 진단과 상담을 병행한 결과, 양성화 실적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광산구청은 “광주건축사회와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현장을 연계한 민원 서비스가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 행정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풍암·일곡 등 택지지구 건축규제 대폭 완화

1층 층고 제한 폐지·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

광주광역시가 풍암·일곡지구 등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 9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지난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장기간 유지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특히 염주, 하남1, 봉선방림, 두암, 우산, 오치우산, 금호화정, 일곡 등 8개 지구에서 적용된 ‘건축물 1층 층고 3.5m 이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상가와 주택 건축 시 층고 설계의 자율성이 확대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풍암지구는 상습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풍암교차로 인근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용지의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교육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일곡지구에는 노외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된다. 북구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부지 일부(548㎡)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CCTV와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염주지구는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최대 4필지 이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져 소규모 필지의 활용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4명 (2026. 1. 8. 기준)

• 입회

- 손인국 건축사 / (주)지평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제봉로138번길 9
- 박형욱 건축사 / (주)알앤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63, 2층

• 전출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퇴회

- 이창울 건축사 /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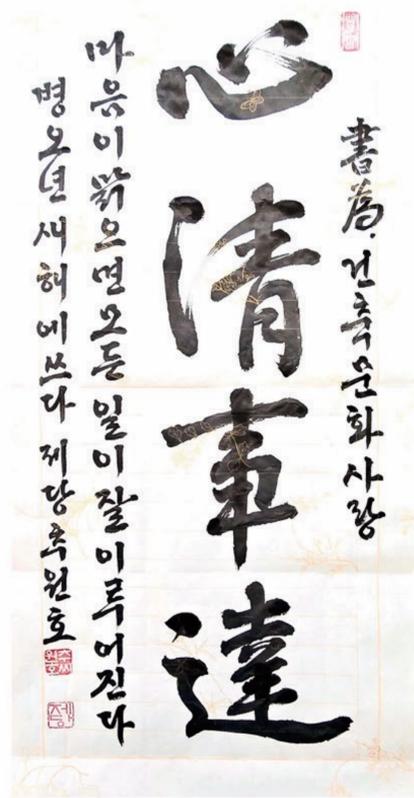
• 결혼

- 이왕범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1월 31일(토)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1월 10일(토)
- 김시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주 / 본인 결혼 - 2026년 1월 25일(일)

• 부고

-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 빙부상 - 2026년 1월 8일(목) 발인
- 남상영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12월 28일(일) 발인

신년회호 _ 濟堂 후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한 장의 사진 _ 봉한샘 학생 作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Saint mary's cathedral
Sydney NSW 2000 Australia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축가의 습관

김선동 / 좋은습관연구소 / 2022. 11. 07.



『건축가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건축가의 세계를 ‘습관’이라는 구체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단어로 풀어낸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건축은 흔히 거대한 스케일과 복잡한 기술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건축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작은 루틴과 태도에 집중한다. 우리는 멋진 건축물만 보지만, 그 뒤에는 반복적이고 단단한 일상의 축적이 있다는 사실을 책은 조용히 일깨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문장은 건축을 향한 가장 인간적인 출발점이며, 동시에 건축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1부에서는 특히 ‘건축가의 일상’을 형성하는 다양한 습관들이 소개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스케치, 글쓰기, 관찰이라는 세 가지 축이었다. 저자는 “스케치는 건축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며, 종이 위에 손으로 그리는 행위 속에서 건축가의 사고가 더 빠르고 깊게 정리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글쓰기를 “또 다른 표현의 도구”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건축이 단순히 시각적 작업만이 아니라 서사와 논리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일임을 깨닫게 했다. 책을 읽는 동안 나 역시 그동안 너무 도면과 이미지 중심으로 사고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고, 스케치와 글을 일상의 일부로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관찰이라는 습관 또한 인상 깊었다. 저자는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훌륭한 교재”라고 말하며, 일상의 풍경을 건축적 언어로 읽어내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 구절을 읽으며, 건축은 특별한 순간에만 발생하는 창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과해 축적되는 감각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2부에서는 건축가가 가져야 할 태도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확장된다. 목차에 등장하는 ‘루틴’, ‘신뢰’, ‘경청’, ‘조율’, ‘겸손’, ‘전략’ 같은 단어들은 건축이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에서 “좋은 건축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쁜 건축은 사회를 퇴보시킨다”고 했듯, 건축가는 공간뿐 아니라 관계와 과정까지 책임지는 자리이다.

특히 “나 자신이 곧 회사”라는 문장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건축가의 태도와 루틴이 곧 작업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자기관리의 차원을 넘어, 설계를 대하는 근본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는 어느 사업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구절은 건축주·시공사·전문가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축의 완성도를 좌우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건축이 예술성과 실용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경청’과 ‘조율’의 장에서 잘 드러난다.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건축가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이전에는 건축가를 특정한 재능이나 창의성으로 정의했다면, 이제는 습관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은 결국 좋은 습관을 쌓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설계 과정에서도 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스케치·관찰·글쓰기 같은 기본적인 루틴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창의성은 특별한 순간에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뿐 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일을 ‘예술이면서도 실용적인 일’로 만들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건축가의 세계를 엿보는 일은 곧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일러준다. 『건축가의 습관』은 건축을 다시 ‘삶의 태도’로 바라보게 만드는, 차분한 울림을 가진 책이었다.

회원알림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사례-1

설계, 입찰공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한 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주요 피해사례-2

학교나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여 명함을 발송한 후, 제3의 업체 물품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공기관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는 수법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전북 회원 수상작만 표기) ※ 자세한 내용은 <http://www.jbaf.or.kr/> 참조

- ◎ **시상목적** :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함.
- ◎ **공모대상** : 사용승인 부문 - 공공 분야(건축주 : 공공기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 민간 분야(건축주 : 개인 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3개 분야(① 주거(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② 비주거(주거용 이외) ③ 한옥(한옥구조 건축물))
 - 공공·민간 분야(건축주 : 공공기관, 개인 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로 조경 분야

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 '호음 ho:om'

설계자 : 최정인 건축사 / 일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48-19 / 대지면적 : 279.8㎡ / 건축면적 : 125.65㎡
연면적 : 199.87㎡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비주거)) 'A VOLTE'

설계자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 용산동 1067 / 대지면적 : 3,571.30㎡ / 건축면적 : 865.06㎡ / 연면적 : 1,455.12㎡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주거)) '화일헌(和日軒)'

설계자 : 안경호 건축사 /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석2길 9-1 / 대지면적 : 435.3㎡ / 건축면적 : 169.74㎡ / 연면적 : 195.065㎡
규모 : 안채 - 지상 2층, 사랑채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안채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랑채 - 한식목구조(한옥)

- ◎ 응모자격 :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 접수기간 : 2025. 10. 27.(월) ~ 10. 28.(화), 09:00 ~ 18:00
- ◎ 심사 및 수상작 발표 : 2025. 11. 3.(월) ~ 11. 5.(수)
- ◎ 수상작 시상 : 2025. 11. 18.(화)
- ◎ 작품전시 : 2025. 11. 18.(화) ~ 11.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
- ◎ 수여 내용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차용 기념동판

◎ 심사위원 : 8인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총괄건축가	김준영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김동균
군산대학교 교수	최정민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신태용
원광대학교 교수	노준석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안수한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김일중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황대연

은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한옥))
‘풍연가옥(豊蓮家屋)’

설계자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237-7의 2필지 / 대지면적 : 245.7㎡ / 건축면적 : 98.21㎡
연면적 : 287.28㎡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일반목구조(전통 목구조)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민간 분야(조경))
‘장자바다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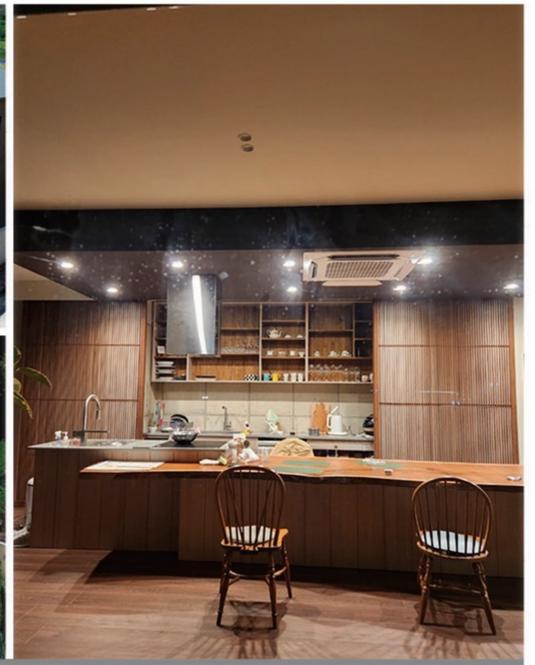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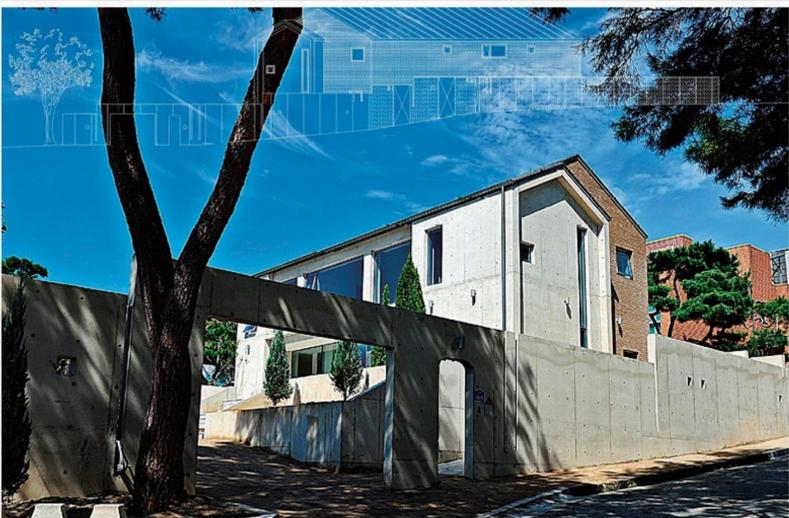
설계자 :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40-1번지 / 대지면적 : 3,174㎡ / 건축면적 : 812.18㎡ / 연면적 : 713.98㎡
규모 : 근생 - 지상 2층, 가설1,2 - 지상 1층 / 구조 : 근생 - RC구조, 가설1 - 기타강구조, 가설2 - 경량철골조

동상(사용승인 부문 민간 분야(주거))
‘다반·재(茶飯·齋)’

설계자 : 김문호 건축사 / 이룩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7-9 / 대지면적 : 595.0㎡ / 건축면적 : 116.5㎡ / 연면적 : 199.2㎡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